

정보조직 전환기의 목록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talog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Information Organization

백지원¹

Ji-Won Back¹

요약

디지털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문헌정보학의 정보조직 분야에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FRBR와 LRM 등 새로운 서지 개념 모형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목록규칙인 AACR이 RDA로, 한국에서는 KCR4가 KCR5로 개정되는 일련의 변화는 목록 기술 방식과 데이터 구조 전반에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정보조직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학습자 요구와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목록 과목을 학업적 성취감이 높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인식하였으나, 생소한 용어, 복잡한 규칙, 짧은 수업 시간 등으로 학습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념 원리 중심의 이해, 전·후 규칙 비교 학습, 사례 참여형 실습 확대,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설계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RDA 및 KCR5 도입기에 효과적인 목록 교육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조직 교육의 질적 개선과 미래형 커리큘럼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정보조직 교육, 목록 학습, RDA, KCR5, 교수학습 전략, 문헌정보학 교육

Abstract

The rapid evolution of the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 has led to a major paradigm shift in knowledge organization with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emergence of conceptual models such as FRBR and the IFLA Library Reference Model (LRM), together with the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cataloging rules, AACR to RDA, and in Korea, the revision of KCR4 to KCR5,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cataloging practices and data structures overall. This study explor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ents' experiences in cataloging education and identifies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for this transitional era. Findings indicate that although students value cataloging for academic and career development, they face challenges from unfamiliar terminology, complex rules, and limited class time.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approaches: concept-principle-centered understanding, pre- and post-rule comparative learning, expanded case-based and participatory practice, and learner-centered instructional design. These strategies aim to enhance cataloging education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future-oriented curricula in knowledge organization.

¹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oongyei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jwb@sewu.ac.kr

* 본 논문은 2024학년도 숭의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ceived(October 14, 2025), Review Result(1st: November 2, 2025), Accepted(December 12, 2025), Published(December 31,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Keyword : knowledge organization education, cataloging instruction, RDA, KCR5, teaching strategies, LIS educ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문헌정보학에서 정보조직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양상은 디지털 정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서지레코드의 기능적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RBR)과 같은 개념 모형의 등장과 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추구하는 추세는 새로운 목록규칙의 개발 및 데이터 구조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정보조직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목록과 메타데이터 영역은 레코드에 관한 개념 모형이 개발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어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AACR)가 대표하던 목록규칙이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RDA)라는 새로운 목록규칙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Library Reference Model(LRM)이라는 도서관 참조 모형의 개발과 그에 따른 RDA의 전면 개정이 이어지면서 또 한 번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1]. 특히 RDA는 Work, Expression, Manifestation, Item(WEMI)의 엔티티 구조를 적용하며, 관계 중심 서술을 요구한다. 이는 전 세계의 서지 제어의 기준이 되었던 AACR 부류의 목록규칙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목록 실무를 담당해온 사서들도 새로운 규칙을 수용하는데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처럼 종이 카드 목록 시대에 개발되어 이어져 온 목록규칙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카드 목록이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 형식으로 변경되었던 시기에 목록의 개념과 규칙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 채, 형식적인 차원 위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 중심의 네트워크 정보 환경에서 도서관 목록의 형식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서지 세계의 개념 정립 및 그에 맞는 목록규칙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었다. 결국, 서지 세계를 해석하는 개념 모형의 등장에 따라 목록규칙과 데이터의 구조 형식 모두가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정보조직 관련 과목은 오랫동안 문헌정보학 분야의 필수 또는 핵심 과목으로 여겨져 왔으므로, 이제는 전통적으로 학습해오던 필수적인 내용에 더하여 변경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이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정보조직 학습의 초점과 시기, 방법 등이 모두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 2010년 RDA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5년간의 논의와 작업 끝에 한국목록규칙(Korean Cataloging Rules, KCR) 5판이 2025년 6월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RDA 및 KCR5 등 새로운 목록규칙은 곧 한국 정보조직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대

한 대비를 위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정보조직 교육의 방식과 내용, 방향성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정보조직 교육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조직 환경의 전환기에 적합한 목록 교수학습법의 방향성과 향후 교육 전략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국내 문헌정보학 전공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보조직 교육과 교수법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자료조직론」, 「분류실습」, 「목록실습」 3개 과목을 이수한 A 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학부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2025년 6월 9일~15일 사이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의 구성은 응답자들의 정보조직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 경험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전환기의 목록규칙 학습 요구와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필요성과 선호 등에 관해 학습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폐쇄형(리커트-단일/복수 선택)과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 71명 중 52명의 응답을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익명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응답은 기술통계 및 항목 간 비교, 복수 응답 항목의 다중 응답 빈도, 개방형 응답의 키워드 중심 내용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 정보조직 영역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습의 경험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조직 관련 3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핵심적인 연구의 초점은 정보조직 영역의 전환기적 변화의 핵심인 목록규칙 관련 분야로 한정하였다.

한편, KCR5가 2025년에 발표되었으나 이는 RDA 신버전이라 할 수 있는 Official RDA가 아닌 구버전인 Original RDA를 반영한 목록규칙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Original RDA가 발표된 2010년 이후부터 Official RDA가 발표된 2020년 이전의 연구를 분석 및 참고 대상으로 하였다. Official RDA는 Original RDA와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2027년경 공식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여 여전히 다양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Official RDA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RDA'는 Original RDA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2. 선행연구

서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정보조직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Hsieh-Yee는 목록 교육이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교육 체계와 교수·학습 전략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2]. 강의는 최신 기술과 표준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론 교육에 치중하기보다 실제 현장 경험과 실습 중심의 학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 협력, 프로젝트 기반 학습, 워크숍과

같은 실무 지향적 활동을 적극 도입할 것과 정기적인 교과목 갱신을 통해 교육 내용이 시대적 요구와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Engelson은 미국 내 학교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목록 교육이 실무 적용에 미흡하며 현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교육이 이론적 이해 없이 규칙만 암기하는 방식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실습 중심 학습의 중요성과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내용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3].

KCR5의 학습에 관해서는 Original RDA가 발표된 2010년 이후부터 Official RDA가 발표된 2020년 이전의 약 10년간의 연구가 직접적인 참고가 된다. Tosaka와 Park는 2010년대 초중반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를 통해 RDA 도입기의 미국 도서관 현장에서의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다. Tosaka와 Park는 RDA 도입 초기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RDA라는 새로운 규칙이 단순한 기술 지침을 넘어 메타데이터 생성 및 활용의 전반적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초기 단계에서 RDA 도입 시 교육 자료 부족, 통합 도서관시스템 미비, 사서들의 학습 부담이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4].

이어진 연구에서 Tosaka와 Park는 미국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 설문 조사를 통해 사서들이 RDA 요소와 구조에 대해 낮은 친숙도를 보이며, 지속적이면서도 저비용의 교육 과정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는 단발적 강의 중심의 기존 연수 방식으로는 변화한 규칙 체계를 충분히 소화하기 어렵고, 모듈형 연수나 마이크로러닝 등 새로운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Park와 Tosaka는 후속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전통적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RDA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인력 부족, 교육 자료 및 훈련 프로그램의 부족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RDA 규칙 자체의 난해함과 AACR2와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RDA는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니라 메타데이터 패러다임 변화로 이해해야 하며, 교육은 장기적·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6].

미국 이외의 사례로서 Al Hijji와 Fadlallah는 오만의 목록 교육이 지나치게 이론 중심에 치우쳐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로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실습과 현장 연계 학습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교육 과정과 실제 업무 간의 괴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정보조직 교육이 실무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RDA와 같은 최신 규칙과 새로운 메타데이터 표준도 수업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서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조직 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Snow와 Hoffman은 미국 내 문헌정보학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목록 수업에서 학습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학생들이 수강한 목록 수업의 경험을 토대로 평가

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결과, 레코드 작성 실습, 교수자의 전문성, 이론과 실습의 균형, 그리고 현실적 맥락 제공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8].

Chen & Joyce는 하와이대학교 문헌정보학의 기초 목록/메타데이터 과목을 사례로, 학생 기대, 실습 구성, 변화하는 트렌드 반영 등을 중심으로 교육 경험을 공유했다. 학생들이 기대하는 학습 영역(기술 적용, 규칙 해석, 자동화 도구 활용 등)과 실제 수업 간의 괴리를 밝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강의 설계 전략과 교수법을 제안했다. 또한, 교수법의 정기적인 재검토 및 최신 기술 변화 반영,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활동, 규칙 중심의 강의와 응용 중심의 실습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수업 설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한 학기의 수업 시간 내에 모든 주제를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새로운 메타데이터나 표준을 포함시키기에는 학습 내용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9].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방법 또는 교수자의 교육 사례에 기반한 성찰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변화하는 서지 환경 속에서 정보조직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목록 학습이 기존의 규칙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과업 중심 학습과 현장 맞춤형 설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특히 Park와 Tosaka가 수행한 세 편의 연구는 한국에서도 KCR4가 KCR5로 변경되고, RDA 전환기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교육 자료 부족, 학습 시간 부족, 생소한 규칙 및 규칙 간 차이 이해의 어려움 등 유사한 문제에 대비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3. 학습자 경험과 의견 분석

학습 만족도, 난이도, 학습량, 학습 시간의 적절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학습 필요성, 과목의 중요도 인식, 효과적인 학습 방식, 새로운 교수법 도입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된 설문 응답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3.1 응답 분석

3.1.1 학습 경험에 따른 인식과 평가

첫째,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난이도에 대한 항목이다. 응답자들은 정보조직 관련 3개의 과목에 대해 모두 ‘만족’ 이상으로 평가했다. 과목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목록실습(88.5%) > 분류실습(75.0%) > 자료조직론(48.1%) 순으로 ‘어려움’ 이상으로 답하여 목록실습 과목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목록실습은 생소한 용어, 목록규칙, 서지 레코드 작성 등 개념 및 도구의 이해와 사용 전반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영어 텍스트

를 활용하는 분류실습에 대한 부담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목록 과목의 난이도에 대해 느끼는 학생들의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습량과 학습 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항목이다. 학습량에 대해 이론 과목인 자료조직론(44.3%)에 비해 실습 과목의 학습량을 ‘많음’ 또는 ‘매우 많음’으로 평가했다. ‘많음’과 ‘매우 많음’의 합계는 분류실습(63.5%)에 비해 목록실습(65.4%)이 약간 높았다. 과목별 학습 시간 적절성 평가 결과, 자료조직론은 대부분이 적절(75%), 분류실습은 과반수가 적절(58%)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목록실습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절’이 39%로 가장 낮고, ‘짧다’(33%)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목록 과목에서 학습 시간 부족 의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1.2 향후 개선에 대한 의견

향후 목록 수업의 향상 및 새로운 교수학습법 도입에 대한 설문 문항과 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각 3순위까지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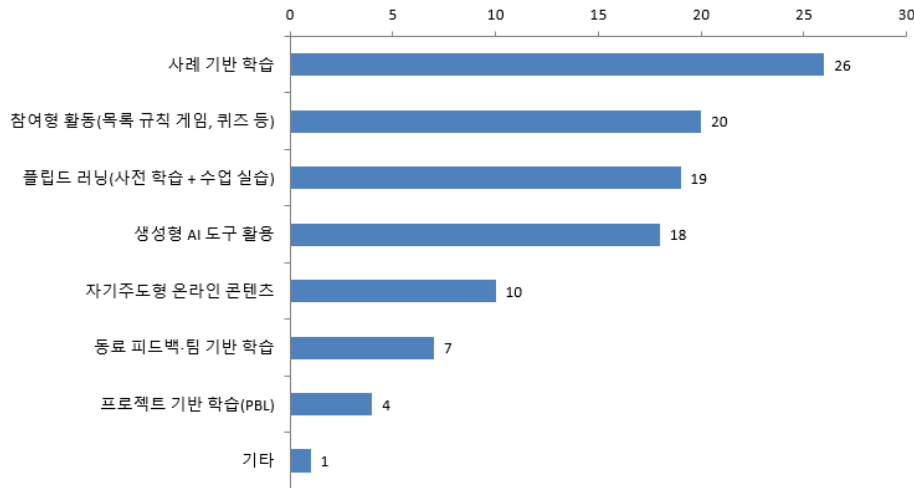
[표 1] 목록규칙 전환기의 새로운 교수학습법에 대한 응답 종합

[Table 1] Response to New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Cataloging Rules

문항	문항 키워드	1위(빈도.%)	2위(빈도.%)	3위(빈도.%)	응답유형
난이도 조절	난이도 조절 방안	쉬운 실습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난이도 상승 (39명, 75.0%)	예시와 사례를 많이 활용 (32명, 61.5%)	퀴즈나 피드백으로 이해도 점검 (14명, 26.9%)	복수
수업 방식	새로운 수업 방식·도구	사례 기반 학습 (26명, 50.0%)	참여형 활동 (목록규칙 게임, 퀴즈 등) (20명, 38.5%)	플립드 러닝 (사전 학습 + 수업 실습) (19명, 36.5%)	복수
최신/국제적 목록 규칙 학습	규칙 간 연계성 이해도	어느 정도 이해함 (26명, 50.0%)	잘 모르겠음 (19명, 36.5%)	충분히 이해함 (4명, 7.7%)	단일
	최신/국제적 규칙 학습 요구도	KCR5의 변화 내용을 알고 싶다 (27명, 51.9%)	기초 개념 정도면 충분하다 (20명, 38.5%)	RDA를 직접 다뤄보고 싶다 (18명, 34.6%)	복수
	효과적 학습 방식 선호도	MARC 레코드 비교 실습 (37명, 71.2%)	사례 분석 (30명, 57.7%)	실습 과제 수행 (22명, 42.3%)	복수

첫째, 학습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항목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복수 응답을 받은 결과, 쉬운 실습부터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75%), 예시와 사례의 적극적인 활용(61.5%), 퀴즈/피드백을 통한 점검(26.9%)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실습을 과제로 분산하는 것, 학습량을 축소하여 핵심 개념만 다루는 것, AI 도구를 활용한 반복 연습 등에 대한 선호가 그 뒤를 이었다.

둘째, 목록 실습수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나 도구에 대해 복수 응답을 받은 결과, 사례 기반 학습, 게임이나 퀴즈 등을 활용한 참여형 활동, 플립드 러닝,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 자기 주도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동료 피드백 및 팀 기반 학습 등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목록수업에 도입을 희망하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나 도구(응답자 수)

[Fig. 1] New Teaching Methods or Tools Respondents Wish to Introduce into Cataloging Classes

셋째, 새로운 한국 표준 목록규칙인 KCR5 및 국제적인 표준 목록규칙에 해당하는 RDA에 대한 기초 이해와 학습에 대한 항목이다. 먼저, AACR2에서 RDA로, KCR4에서 KCR5로의 전환과 상호 연계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였으나, 불확실하거나 미흡하다는 응답(‘잘 모르겠음’ 및 ‘전혀 모르겠음’)도 38%에 달했다.

[표 2] KCR5 및 RDA에 대한 학습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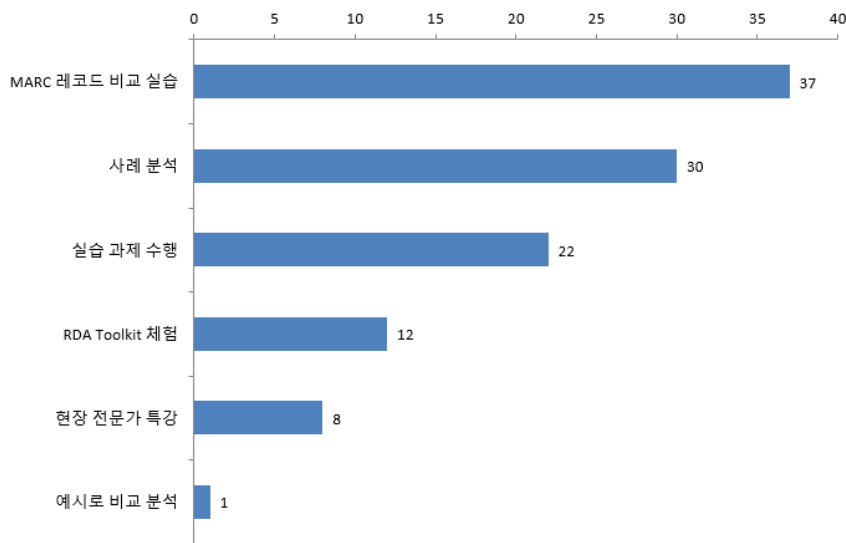
[Table 2] Learning Needs Assessment for KCR5 & RDA

항목	응답자 수	비율(%)
KCR5의 변화 내용을 알고 싶다	27	51.9
기초 개념 정도면 충분하다	20	38.5
RDA를 직접 다뤄보고 싶다	18	34.6
KCR4보다 우선하여 배우고 싶다	6	11.5
현행 규칙인 KCR4를 중심으로 한 기존 내용만으로 충분하다	2	3.8

다음으로 최신 국내·국제 표준인 KCR5 및 RDA에 대한 학습 요구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미래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새로운 규칙에 대한 학습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표 2]는 상위

응답 5개로, KCR5와 RDA 교육에 대해 KCR5 변화 내용 파악 필요(51.9%), 기초 개념 정도로 충분(38.5%), RDA를 직접 다루보고 싶은 요구(34.6%), KCR4보다 새로운 규칙을 우선하여 배우고 싶은 요구(11.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기존 규칙인 KCR4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은 3.8%에 불과했다. 최신 규칙인 KCR5와 RDA 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자유 응답으로는 ‘실무 대비’와 ‘기초 지식 확보’를 많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KCR5 및 RDA의 학습을 위해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으로 ‘MARC 레코드 비교 실습’, ‘사례 분석’, ‘실습 과제 수행’, ‘RDA Toolkit 체험’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KCR5 및 RDA 학습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응답자 수)

[Fig. 2]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KCR5 and RDA Learning

3.2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 과목의 난이도와 학습 시간 조절의 필요성이다. 학습자들은 목록실습 과목의 난이도와 학습량의 부담이 정보조직 과목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그에 반해 현재의 학습 시간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목록 수업 운영에서 학습 부담 조절 방안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AACR2/KCR4에서 RDA/KCR5로의 전환과 상호 연계성에 대해 자료조직론부터 목록실습 과목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목록규칙 변경의 배경과 개요를 학습하였으나, 짧은 시간 동안의 개괄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으로는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1~2주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새로운 목록규칙과 구조 표준을 다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환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시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목록 과목에 대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동시에 긍정적 인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목록의 복잡한 규칙 이해와 적용, 그리고 서지 레코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이 자유 응답에 대한 텍스트 빈도 기반 분석에서 최다 등장하는 등 내용 이해와 복습 부담이 크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이론적 과목보다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는 점에서 재미와 유익함이 있다는 점, 직접 실습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다른 과목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실무 적용성의 측면에서 실제 업무 수행 시 학습 내용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향후 진로와 관련된 측면에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이론과 실습 연계 학습의 중요성이다. 학습 시 도움이 되었던 활동으로는 ‘카드 목록 작성 해보기’, ‘MARC 실제 사례 찾아보기’ 등 실습 기반 수업을 효과적인 학습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단순 이론 학습이 아니라 RDA Toolkit 체험과 같은 실무 중심의 학습 선호가 높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자료조직론을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목록실습, 분류실습이 쉬웠다”, “이론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례 위주의 수업을 하면 꼭 필요한 전공 지식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등 학습자들은 이론의 중요성과 이론 수업의 선행이 실습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이론적 내용과 실무적 훈련이 균형을 이루는 수업이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새로운 내용 및 교수학습법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였다. 학습 난이도와 학습량에 대한 부담, 내용에 비해 짧은 학습 시간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게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목록규칙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학습 의지가 높았다. 또한, 현실적인 학습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었다.

4. 전환기 교수학습 전략

RDA-KCR5 전환기의 정보조직 환경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현행 교육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록 교육의 방향성 및 교수학습 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규칙 중심에서 원리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표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ACR2나 KCR4 시대의 규칙 습득 위주의 학습이 아닌, FRBR,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FRS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Subject

Authority Records), LRM 같은 개념 모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초창기에 RDA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이 AACR2와 RDA가 무엇이 다른지에 너무 집중하여, 변화의 목적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습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0]. 교육자들은 목록규칙의 변화를 설명할 때 규칙 자체의 변화에 함몰되지 말고, 변화가 필요한 이유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둘째, 학습법으로서 규칙 자체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비교 대응 방식의 교수학습법이 필요하다. 정보조직의 전환기적 환경은 과거 및 현재의 규칙과 조만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규칙을 한정된 시간 내에 모두 익혀야 하는 부담을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학습자에게 AACR2에서 RDA로, 또는 KCR4에서 KCR5로의 전환을 대응시켜 비교하는 관점에서 학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과거 규칙과 현재 규칙을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대신, 두 규칙 간의 차이를 의미 있는 구조로 연결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방식을 통해 학습자는 규칙의 철학적 배경과 서지 기술의 목적을 비교하여 익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교수법의 측면에서 강의식 교육을 탈피한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RDA는 단순히 목록규칙의 변화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MARC와의 대응 관계, BIBFRAME, Linked Data 등 새로운 데이터 구조 표준과 데이터 환경에서의 적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MARC 환경을 전제로 한 평면적인 문서 중심의 데이터 구조화를 기반으로 한 학습 방식으로는 정보조직 환경의 변화가 의도하는 새로운 서지 세계의 효용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RDA/KCR5의 다차원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속성을 보다 실무 중심으로 학습하고 익힐 수 있는 사례 기반 학습이나 플립드 러닝 등의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도입을 통해 제한된 학습 시간 내에 이론과 실습의 유기적 연결, 도구를 이용한 실습 중심 학습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 과정의 설계에 있어서 학습자의 사전 지식수준과 학습 시기를 고려하여 전환기의 변화된 규칙을 다루는 순서와 학습의 초점을 정해야 한다. 단계적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기존 규칙의 핵심 요소를 먼저 학습하고, 이후 신규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은 학습 내용의 전체 구조가 유사하고 학습자가 기존의 정보조직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근래 목록 분야의 변화는 단순히 신규 조문의 차이를 익히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기반 구조와 논리가 크게 변경되었다. 또한 이러한 순차적 방식의 학습에서는 학습한 기존의 내용을 변경된 규칙의 논리에 맞춰 다시 재조정해야 하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정보조직의 기존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전공 초심자들에게는 오히려 RDA-KCR5를 먼저 익히게 하는 역순서 방식의 교수학습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역순의 학습을 진행한다면 신규 규칙을 먼저 학습하고 AACR2-KCR4 중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교수자가 학습자의 요구 및 실무의 환경 변화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대비

한 교수학습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급변하는 정보조직 환경에서 문헌정보학 전공 학습자들은 새로운 개념 모형과 목록규칙, 구조 표준 등의 등장으로 목록 학습에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시대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목록 교육 방향 설정과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목록은 학습자에게 학업적 성취감이 높고 향후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용성 높은 중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생소한 용어 및 복잡한 규칙 이해 등에 대한 학습의 부담감, 그에 반해 부족한 학습 시간 등이 학습의 어려움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조직 분야에서는 예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적 모형에 기초한 신규 표준 목록규칙이 2025년 6월에 발표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2010년 전후로 시작되어 그에 맞는 데이터 구조로의 전환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국제적인 표준 목록규칙은 RDA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새로운 규칙과 데이터 구조가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실무에 도입될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아직 어려우므로, 기존에 학습하던 규칙과 구조에 대한 학습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규칙의 적용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므로 새로운 학습 내용과 양을 고려한, 현실적 제약과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한 목록 과목의 난이도와 학습 시간 조절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 그리고 이론-실습의 연계 강화를 큰 방향으로 설정하여, 개별 규칙이 아닌 원리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 목록 규칙간의 비교 대응 방식의 학습 설계,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도입, 전환기적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 도입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러한 교수학습 전략을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가 가지는 학업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전환기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보조직 교육의 질적 개선과 미래형 커리큘럼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목록 수업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Consolidation Editorial Group of the IFLA FRBR Review Group, P. Riva, P. Le Boeuf, and M. Žumer, "IF LA Library Reference Model: A conceptual model for bibliographic informati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July 2024. [Online].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20500.14598/40.2>
- [2] I. Hsieh-Yee, "Educating cataloging professionals in a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9, no. 2, April 2008, pp. 93-106.
- [3] L. A. Engelson, "Sufficiency of cataloging education: School librarians respond",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60, no. 4, December 2019, pp. 345-363. doi: 10.3138/jelis.2018-0072.
- [4] Y. Tosaka, J. R. Park, "RDA: Resource description & access-A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64, no. 4, April 2013, pp. 651-662, doi: 10.1002/asi.22825.
- [5] Y. Tosaka, J. R. Park, "RDA: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need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55, no. 1, January 2014, pp. 3-25.
- [6] J. R. Park, Y. Tosaka, "RDA implementation and training issues across United States academic libraries: An in-depth e-mail interview stud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56, no. 3, July 2015, pp. 252-272, doi: 10.12783/issn.2328-2967/56/3/6.
- [7] K. Z. Al Hijji, O. S. Fadlallah, "Theory versus practice in cataloging education in Oman: Students' perspectiv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51, no. 8, October 2013, pp. 929-944, doi: 10.1080/01639374.2013.832456.
- [8] K. Snow, G. L. Hoffman, "What makes an effective cataloging course? A study of the factors that promote learning",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59, no. 4, October 2015, pp. 187-199, doi: 10.5860/lrts.59n4.187.
- [9] S. Chen, M. Joyce, "Teaching a cataloging/metadata course in a changing world: Experience and refl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brarianship*, vol. 4, no. 2, December 2019, pp. 111-122, doi: 10.23974/ijol.2019.vol4.2.132.
- [10]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U.S. RDA Test (public release, June 20, 2011)",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USA, Tech. Rep., June 2011. [Online]. Available: https://www.loc.gov/aba/rda/rda_test_archives.html.